



2021년 02월 가정통신문

죄송한 말씀드립니다.

전산청구액이 잘못되어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.

나중에 보내신것으로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
혹 먼저 입금하신분들은 다음달에 전월 미납금으로 청구될 예정이오니

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

그리고 간식 택배를 보내시면서 어르신 성함이 없이 늘푸른소망요양원이라고만 보내신분이 계셔서

사무실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인천에서 보내주셨는데 카스타드4팩과 두유4팩입니다.

꼭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업무에 실수가 있어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.

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.

감사합니다.

